

뉴질랜드의 목양산업(2)

1980년대에는 보더데일(Boaderdale)이란 신종이 개발되는 등 뉴질랜드만의 독자적인 성격이 분명히 들어난다. 현재 뉴질랜드의 양모종의 구성은 크로스 브레드, 하프브레드, 메리노, 스페셜 리스트, 다운의 다섯 가지 타입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전 양종의 84 %가 크로스 브레드 타입인데, 그 중에서 롬니가 45 %, 페렌데일 18 %, 쿠프워드 18 %, 보더 레스터 1 %, 보더 데일 1 %, 그리고 기타 1 %로 구성된다. 다음으로는 하프브레드 타입이 12 %인데, 그 중에서도 코리데일이 8 %, 뉴질랜드 하프브레드 4 %로 구성되며, 메리노양은 전체의 2 %밖에 되지 않는다. 스페셜 리스트는 드라이스데일 1 %, 그리고 체비어트가 소수점 이하이다. 다운 종은 사우스 다운, 도싯, 서포크, 사우스 서포크, 도싯 다운, 사우스 도싯 다운, 햄프셔 등인데, 이들을 모두 합하여도 1 %가 안된다.

1983, 1984년도의 경우 뉴질랜드 목양업자의 소득원은 고기가 50 %, 양모가 40 %, 기타 소득이 10 %로 구성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양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롬니(Romney)

뉴질랜드 롬니는 영국의 켄트(Kent)주에서 사육되고 있던 롬니 머쉬 종을 개량한 것으로 습기에 강하고, 이 고장의 토양에도 잘 어울려 그 양모는 굵기가 33~37 μm 정도로 굵고, 양모의 길이는 125~175 mm, 한 마리당 4.5~6 kg까지 채모가 가능하다. 이 양모의 주 용도는 카펫, 모포, 방모직물, 수편 모사용 등이다.

2. 페렌데일(Perendale)

앞에서 소개한 롬니는 습지에서는 강하나 황무지 같은 구릉지대에는 적당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롬니와 체비아트 종의 교배종인 페렌데일이다. 메시 대학(Massey Univ.)의 페렌(Peren) 교수에 의하여 탄생한 양으로 롬니보다는 체격이 좀 작으나 다리는 길다. 양모의 굵기는 31~35 μm 로 롬니 양모 보다는 가늘고, 양모의 길이는 100~150 mm, 한 마리당 채모량은 3.5~5 kg이다. 주 용도는 롬니 양과 같다.

3. 쿠푸워드(Coopworth)

롬니 종의 결점종 하나가 출산율이 90~120 %로 별로 높지 않아서 롬니의 암컷과 보더 레스터의 수컷의 교배에 의하여 탄생한 이 쿠푸워드 종은 출산율이 110~130 %로 높다. 또한 양의 젖도 풍부하여 새끼 양의 발육도 빠르다. 양모는 롬니보다도 광택이 있으며, 굵기는 35~39 μm 로 굵다. 길이는 거의 롬니와 비슷하며, 한 마리당 채모량은 4.5~6 kg이다. 이 양모의 주 용도는 방모직물, 두꺼운 의류용이다.

4. 코리데일(Corriedale)

뉴질랜드에서는 메리노의 사육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많다는 것을 알고, 1860년대에 메리노와 링컨, 잉글리쉬 레스터, 롬니, 보더 레스터 등과 교배시켜 개량해 나갔으며, 여기에서 개발된 것이 뉴질랜드 하프브래드인데, 같은 종자를 반복하여 고정시켜 놓은 것이 코리데일이다. 양모의 굵기는 28~33 μm 의 중번수이고, 길이가 75~125 mm, 한 마리당 채모량은 4.5~6 kg다. 페렌데일과 마찬가지로 볼륨이 있고, 모포, 수편 모사, 트위드 직물, 니트 제품 등 용도도 다양하다.

5. 하프브레드(Halfbred)

이 종은 메리노와 레스터, 링컨, 롬니 등 영국종과 교배시켜 19세기에 탄생한 것인데, 주

로 양모 생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양모의 굵기도 25~31 μm 로 뉴질랜드 양모 중에서는 가는 편이고, 길이도 75~110 mm로 짧고, 한 마리당의 채모량은 4~5 kg, 출산율은 80~100%로 메리노 양과 비슷하다. 양모의 용도는 소모직물 등 어패럴용 직물, 고급 니트웨어용, 수편 모사용 등이다. ♣ (공석봉)